

## 통상 News Brief 2022 \_ Vol.3

July 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의 통상 News Brief는 매월 수집되는 국제통상 관련 뉴스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를 Top Story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통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op Story] WTO 제12차 각료회의** p.3

#### [주요 단신]

##### 1) 관세 및 쿼터 p.5

- (06.04.) EU,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한시적 무역자유화 조치 시행
- (06.15./06.22.) 미국, 백악관, 의회 등에서 제301조 면제 논의
- (06.17.) 우크라이나, 미상무부에 무역구제 조치 철회 요구

##### 2) 수출통제/경제제재 p.6

- (06.01.)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금지 발표
- (06.03.) EU 러시아에 대한 제6차 제재 패키지 발표
- (06.27.) 미국, 러시아산 금 등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 시행

##### 3) 투자심사 p.6

- (06.12.) 미국 의회, 국외투자 심사메커니즘(outbound investment review mechanism)을 포함한 법안 발의

#### 4) FTA 등 경제블록화 p.7

- (06.08.) 미국,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가 참여하는 미주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추진 발표
- (06.11./06.23-24.) 제12차 BRICS 통상장관회담 및 제14차 BRICS 정상회담 개최
- (06.17.) EU-인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협상 재개
- (06.26.-28.) G7 정상회담 진행

#### 5) 디지털 p.9

- (06.23.) 미국 상원에서 데이터 수출통제를 담고있는 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Surveillance Bill 제안

#### 6) 환경/노동 p.9

- (06.13.) EU, 에콰도르, 케냐, 뉴질랜드 통상장관들 포용적인 기후에 관한 통상장관 연합(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추진 발표
- (06.22.) EU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의 이행과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발표
- (06.27.) 미국,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규제받지 않은 어업(IUU 어업) 및 이와 관련한 노동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각서(Memorandum)에 서명

#### 7) 공급망 p.10

- (06.14.) 미국주도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출범
- (06.21.)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시행
- (06.27.) EU-노르웨이, 배터리와 원자재의 전략적 가치사슬에 있어 정치적, 산업적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 발표

## [Top Story] WTO 제12차 각료회의

**(주요내용)**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음. 이번 제12차 각료회의는 그간 코비드 19로 2차례 연기되었다가 5년만에 열린 것이고 회의 기간도 예정보다 2일 더 연장되었음. 동 회의에서는 다양한 결정문(Decision)과 선언문(Declaration)으로 구성된 제네바 패키지(Geneva package)가 발표됨.<sup>1</sup> 결정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반면, 선언문은 정치적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임.

- 제네바 패키지에는 △ 식량안보, △ 코로나 19 대응,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기간 연장, △ 수산보조금협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외에도 소규모경제를 위한 프로그램, TRIPS 비위반제소(non-violation)와 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s)<sup>2</sup>에 대한 결정문과 SPS 선언문과 WTO 개혁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되었음.<sup>3</sup> 구체적으로 식량안보와 관련하여서는 (1) 식량불안(food insecurity) 긴급대응 선언서와 (2)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 대한 선언서를 채택하였음. 이에 따르면 식량안보에 대한 긴급조치가 취해질 경우, 무역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조치는 일시적이고(temporary), 제한적이며(targeted), 투명(transparent)하며 나아가 WTO 규정에 따라 통보되고 이행되어야 함. 또한 WFP가 비상업적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 금지나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아야 함.
- 코비드 19 대응과 관련해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과 TRIPS 제31조를 활용하여 코비드 19 백신 생산과 공급시 특허권의 일부 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음. 특히 팬데믹 대응 관련 선언문에서는 대응 방안에 대한 통보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비드 19 대응을 위한 긴급무역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targeted), 비례적으로(proportionate), 투명하고(transparent), 일시적으로(temporary)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거나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disruption)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아가 관련 WTO 기구들이 2024년말까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한 교훈과 도전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 차원에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있음.
- 수산보조금협정에서는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규제받지 않은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에 관여하는 선박이나 사업자(operator)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제3조). 또한 남획된 어종(overfished stocks)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금지되나(제4조),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획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은 허용됨. 더불어 공해에서 행해지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금지됨(제5조). 특히 초과어획(overcapacity) 및 남획(overfishing)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도 2021년 11월에 공개되었던

<sup>1</sup> [WTO | 2022 News items - WTO members secure unprecedented package of trade outcomes at MC12](#)

<sup>2</sup> 비위반제소(non-violation)는 협정위반과 상관없이 WTO협정상의 정당한 이익이 무효화, 침해되는 것을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황제소(situation complains)는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 외에 협정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기타 다른 상황의 존재(the existence of any other situation)하는 경우 이를 제소하는 것을 의미함.

<sup>3</sup> 주제별 구성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안보는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및 Ministerial Decision on World Food Programme (WFP) Food Purchases Exemptions from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코로나 19 대응의 경우에는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WTO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dness for Future Pandemics 및 Ministerial Decision o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는 Decision on the E-commerce Moratorium and Work Programme이 채택됨.

협상문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폭 삭제되었음. 동 협정문은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하여야 발효되며, 제12조는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으로 동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포괄적인 규범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해당 협정은 즉시 종료된다고(terminate)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WTO 개혁에 관한 협의 절차에도 합의하였음. 회원국들은 WTO 일반이사회 주도하에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절차에 따라 제13차 각료회의시까지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function), 협상(negotiating function), 모니터링 및 이행(monitring and implementation)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음.
  - ▶ 특히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2024년까지는 완전히(full), 정상적으로 작동하는(well-functioning) 분쟁해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함

**(의의 및 향후계획)** 코비드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다자간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제12차 각료회의를 통해 164개 회원국들이 위와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각료회의 전 WTO 사무총장은 1~2개의 결과물만 만들어내도 이번 각료회의는 성공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나아가 전통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던 것과 달리,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등 큰 시장을 가진 개도국들이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이에 따라 채택된 제12차 각료회의 결과문서에서는 개도국 특혜조항의 중요성이 여러차례 재확인되고 있음. 더불어 20여년간 이어지던 수산보조금 협상을 일단 매듭지으면서 무역과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WTO 차원의 첫번째 다자간 협정이 등장하였으며, 코비드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SPS협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WTO 차원의 협력과 대화를 약속하는 등 WTO차원에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음.

2년마다 개최되는 본래의 일정에 따라, 제13차 각료회의는 2023년 12월 31일 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최근 브라질은 WTO 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 [주요 단신]

### 1) 관세 및 쿼터

6월 4일 EU는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적용되던 통상조치들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함<sup>4</sup>

- Regulation 2022/870을 통해 EU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EU-Ukraine Association Agreement) 부속서 1-A에 따라 7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공산품(industrial products)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취하고, 부속서 1-A에 포함된 과일이나 야채 수입시 적용되는 수입관세인 반입가격시스템(entry price system)도 일시 중단함. 나아가 농산물에 적용되는 모든 할당관세와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적용되고 있던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도 중단되었음.

6월 15일, 미 백악관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세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함<sup>5</sup>

- 백악관 대변인인 Karine Jean-Pierre는 트럼프 시절 제301조를 활용하여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관세로 미국내 가구와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였다고 언급함. 이에 따라 내부적 논의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관세 감축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6월 17일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미 상무부에 서한을 발송하여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를 철회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을 중지하거나 종료해줄 것을 요청함<sup>6</sup>

- 동 서한에서는 미 상무부는 1930관세법 제751(b)를 활용하여 상황변경을 이유로 반덤핑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5월에는 미 상무부에서 우크라이나 철강에 부과되고 있던 1930 관세법 제232조 관세, 소위 국가안보 관세를 1년간 적용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sup>7</sup>

6월 22일, 미 상원에서 이루어진 2023년 USTR 예산관련 청문회(hearing)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301조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sup>8</sup>

<sup>4</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2R0870&from=EN>

<sup>5</sup> <https://www.reuters.com/business/white-house-says-discussing-irresponsible-tariffs-imposed-by-trump-2022-06-14/>

<sup>6</sup> [wto2022\\_0415a.pdf \(insidetrade.com\)](https://www.insidetrade.com/wto2022_0415a.pdf)

<sup>7</sup>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2/05/raimondo-announces-temporary-suspension-232-tariffs-ukraine-steel>

<sup>8</sup> [USTR Tai calls U.S. tariffs on Chinese goods 'significant' leverage | Reuters](https://www.reuters.com/business/ustr-tai-calls-u-s-tariffs-on-chinese-goods-significant-leverage-2022-06-22/)

-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면제 조치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USTR 수장인 Tai는 해당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중국에 대한 중요한 레버리지라는 입장을 보임

## 2) 수출통제/경제제재

### 6월 1일 말레이시아가 닭고기 수출 중단을 발표함<sup>9</sup>

- 우크라이나 사태, 코비드19 등으로 인해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이유로 빈번하게 식품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음. 4월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수출을 제한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였음.

### 6월 3일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위한 제6차 패키지를 발표함<sup>10</sup>

- 동 패키지에는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을 90%까지 축소하고, 러시아 은행 3곳과 벨라루스 은행 1곳에 대하여 SWIFT 이용을 금지하며, 6개월 뒤부터 러시아산 석유와 제품을 실은 유조선에 대해서는 보험 및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6월 27일 미국은 러시아산 금 등에 대하여 관세인상 성명서(proclamation)를 발표함<sup>11</sup>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석유제품,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광물, 광석, 금속, 화학품, 무기 및 탄약, 목재 및 종이제품, 항공기 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인상조치를 단행함

## 3) 투자심사

### 6월 12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초당파적으로 국외 투자와 거래에 대한 심사제도(outbound review mechanism) 도입을 골자로 하는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NCCDA)를 제안함.<sup>12</sup>

<sup>9</sup> [https://www.nytimes.com/2022/06/10/business/asia-export-ban-chicken-wheat-oil.html#:~:text=For%20Indonesia%20it%20was%20cooking,low%2Dincome%20consumers%20at%20home,'닭고기 파동' 말레이시아, 생닭부터 너겟까지 수출금지 | 연합뉴스 \(yna.co.kr\)](https://www.nytimes.com/2022/06/10/business/asia-export-ban-chicken-wheat-oil.html#:~:text=For%20Indonesia%20it%20was%20cooking,low%2Dincome%20consumers%20at%20home,'닭고기 파동' 말레이시아, 생닭부터 너겟까지 수출금지 | 연합뉴스 (yna.co.kr))

<sup>10</sup>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802](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802)

<sup>11</su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6/27/proclamation-on-increasing-duties-on-certain-articles-from-the-russian-federation/>

<sup>12</sup> [Bipartisan Statement on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Committee Proposal | Representative Victoria Spartz \(house.gov\), ROS22860 \(insidetrade.com\)](https://www.insidetrade.com/bipartisan-statement-on-national-critical-capabilities-committee-proposal-representative-victoria-spartz-house.gov-ros22860)

- NCCDA가 도입되면 새로운 범정부 패널인 Committee on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이 설립되고,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외 투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금지할 수 있게 됨. 이 위원회는 현재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를 심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임.
- 동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안보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에 대해서도 적용됨.

#### 4) FTA 등 경제블록화

**6월 8일 미국 백악관은 아메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추진을 공식 발표함.**<sup>13</sup>

- 미국은 동 파트너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심화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도하며, 공급망,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장치들을 구축할 것을 확인하고 있음.

**6월 11일 제12차 BRICS 통상장관회담 및 6월 23-24일 제14차 BRICS 정상회담 개최.**<sup>14</sup>

- 6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BRICS 통상장관회담에서는 디지털 경제, 통상, 투자, 지속가능한 개발, 공급망 협력 및 다자간 통상시스템 지지를 담은 공동 코뮌iqué(Joint Communique and Annexes)가 채택되었음.
- 6월 23-24일에는 화상으로 BRICS 파트너십 촉진 및 글로벌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대(Foster High-quality BRICS Partnership, Usher in a New Era for Global Development)를 주제로 제14차BRICS 정상회담이 개최됨.
- 정상회담에서는 베이징 선언서가 채택되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및 개혁, 코비드 19 대응을 위한 연대 평화와 안보 유지, 경제회복,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이행, 인적교류, 제도적 발전을 다루고 있음.

**6월 17일 EU와 인도는 2013년 이후 중단되었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함**<sup>15</sup>

- 양국은 2023년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균형되고 포괄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을 언급함. 이를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통상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무역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 투자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최근 EU가 강조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협정도 논의될 것이며 상호 관심있는 시장접근

<sup>13</sup>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the 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08/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the-americas-partnership-for-economic-prosperity/)

<sup>14</sup> [The Joint Communique and Annexes of the 12th Meeting of the BRICS Trade Ministers - \(mofcom.gov.cn\), 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206/t20220623\\_10709037.html](https://www.fmprc.gov.cn/eng/zxxx_662805/202206/t20220623_10709037.html)

<sup>15</sup>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india-kick-start-ambitious-trade-agenda-2022-06-17\\_en,](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india-kick-start-ambitious-trade-agenda-2022-06-17_en)

이슈들도 함께 검토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음.

#### 6월 26일 - 28일간 G7 정상회담 진행<sup>16</sup>

- 독일이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래의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음: 지속가능한 지구(Sustainable planet), 경제적 안정과 변혁(Economic stability and transformation), 건강한 삶(healthy lives),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Investment in a better future),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 경제적 안정과 변혁에서는 통상과 공급망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다음에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무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협상과 어업협상, 농업개혁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concrete progress)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나아가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책과 관행-산업보조금 지급이나 국영기업의 무역왜곡 행위 등-을 다루는 보다 강력한 국제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동시에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또한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 WTO에 합치하는 무역과 관련된 기후 및 환경조치를 통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글래스고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진전시켜 나갈 것도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공급망에서 인권, 환경 및 노동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최대한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강제노동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
-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의 국제적 공조, 특히 중요 원자재 및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G7 국가들은 시장순환(market circularity), 대체 자원, 공정능력, 지속가능한 관행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조기 경보 메커니즘에 대한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해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글로벌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경제적 강제(economic coercion) 등과 같은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한 평가, 준비, 억지,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음.

<sup>16</sup> [Germany holds the G7 Presidency | G7 Germany 2022, 2022-06-28-leaders-communique-data.pdf \(g7germany.de\)](#), [2022-06-28-leaders-communique-executive-summm-data.pdf \(g7germany.de\)](#)



## 5) 디지털

6월 23일 미국 상원 Wyden 의원은 미국인의 특정 개인정보 데이터 수출을 통제하는 **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Surveillance Bill**을 제안함<sup>17</sup>

- 동 법안은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을 개정하여 미국인 및 미국내 개인의 특정 개인데이터의 수출통제 요건을 신설하고 있음.
- 동 법안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범주화하고 1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규모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출, 재수출, 국내전송(in-country transfer)할 경우 미 상무부로부터 수출 라이선스(license)를 얻거나 이와 유사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국가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출, 재수출, 국내전송을 금지하고 있음.

## 6) 환경/노동

6월 13일 EU 통상장관은 에콰도르, 케냐, 뉴질랜드와 포용적인 기후에 관한 통상장관 연합(Coalition of Trade Ministers on Climate)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발표함.<sup>18</sup>

- 해당 국가의 장관들은 통상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파리기후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체를 구성하기로 논의함.
- 7월 중으로 통상장관 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내년초에 첫번째 연합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6월 22일 EU는 통상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함.<sup>19</sup>

- EU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TSD) 챕터 모델을 향상시키기 위한 6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하였음; △ 파트너국과의 협력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TSD

<sup>17</su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6/09/executive-order-on-protecting-americans-sensitive-data-from-foreign-adversaries/>, <https://www.wyden.senate.gov/news/press-releases/wyden-releases-draft-legislation-to-protect-americans-personal-data-from-hostile-foreign-governments>

<sup>18</sup>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teams-ecuador-kenya-new-zealand-forge-cooperation-trade-and-climate-2022-06-13\\_en](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teams-ecuador-kenya-new-zealand-forge-cooperation-trade-and-climate-2022-06-13_en)

<sup>19</sup>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921](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921)

챗터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통상협정의 주류로 자리잡아야 함, △ TSD 이행 약속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 최후의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강화

### 6월 2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규제받지 않은 어업(IUU Fishing)과 이와 관련한 노동착취를 다루기 위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에 서명<sup>20</sup>

- 미국, 영국, 캐나다와 함께 IUU 어업 행동동맹(IUU Fishing Action Alliance)을 출범시키고 IUU 어업 관련 모니터링, 통제, 감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을 예고함. 나아가 행정부에 IUU 어업 관련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발표함
- 나아가 USTR과 미국해양대기관리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공동으로 IUU 어업활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수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 7) 공급망

### 6월 14일, 미 국무부 주도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결성<sup>21</sup>

-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파트너십으로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EU, 핀란드,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음.
- MSP를 통해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시 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가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함

### 6월 21일 미국에서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본격 시행됨<sup>22</sup>

- 6월 17일에는 국토안보국과 공동으로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및 제조된 상품의 수입방지 전략 (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발표함.<sup>23</sup>
- 6월 17일에는 국토안보국이 의장으로 USTR, 상무부 등 7개의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

<sup>20</su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6/27/memorandum-on-combating-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fishing-and-associated-labor-abus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7/fact-sheet-president-biden-signs-national-security-memorandum-to-combat-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fishing-and-associated-labor-abuses/>

<sup>21</sup> <https://www.state.gov/minerals-security-partnership/>, 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mofa.go.kr)

<sup>22</sup>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2/06/secretary-raimondo-statement-implementation-uyghur-forced-labor>

<sup>23</sup> <https://www.dhs.gov/uflpa-strategy>

(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가 출범하였음.<sup>24</sup>

6월 27일 EU는 노르웨이와 배터리 및 그 원재료의 전략적 가치사슬에서 정치적, 산업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sup>25</sup>

- 공동성명을 통해 노르웨이는 유럽 배터리 동맹(European Battery Alliance)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배터리 아카데미(European Battery Academy)에도 참여할 의사를 표시함.
- 나아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노르웨이산 배터리팩과 배터리 셀에 대하여 EU-영국간 체결된 무역협력협정 상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이 외에도 광물 매핑(mapping)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탄소제로 배터리 광물 추적(Tracing Net-Zero Battery Minerals) 행사를 개최할 것을 약속함.

---

<sup>24</sup> <https://www.dhs.gov/forced-labor-enforcement-task-forc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june/forced-labor-enforcement-task-force-launches-enforcement-strategy-uyghur-forced-labor-prevention-act>

<sup>25</sup>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2\\_4150](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2_4150)

---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